

전체 엘리트 중 명문가 출신은 4.3%뿐 짚은 정치 변동에 명문가 뿌리 못내려

이회창씨 가문 27명 배출 ... 최고 명문가 26명씩 포함된 삼성·LG·현대 공동 2위

어느 사회에나 명문가는 존재한다. 중세 유럽의 귀족이나 조선시대의 문중(門中)이 대표적이다. 현대의 유럽이나 일본, 역사가 짧은 미국에도 명문가는 있다. 끈끈한 혈연으로 맺어지면 다른 어떤 집단보다 결속력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파워 엘리트 3만1800명의 혈연 관계를 따져 봤다. 취재팀은 5촌 이내 혈족과 동서·사돈, 즉 '가까운 친인척' 관계를 혈연으로 규정했다. 명문가는 편의상 두 명 이상의 파워 엘리트를 갖고 있는 혈연 집단으로 봤다.

◆ 명문가 엘리트는=우리 국민(4700만 명 기준) 중 파워 엘리트는 0.07%였다. 취재팀의 분석 결과 이들 파워 엘리트 중에서도 명문가에 소속된 엘리트는 4.3%였다. 따라서

국민 중 명문가 소속 엘리트는 국민의 0.003%, 즉 국민 10만 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명문가 중 상위 7개 집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소속 엘리트가 5명 이하인 '소규모' 명문가였다.

국내 명문가를 연구 중인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한신갑(사회학) 교수는 "미국은 1000개 집안 정도를 정통 명문가로 본다"며 "그러나 한국은 명문의 뿌리가 거의 단절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문화적 엘리트층을 많이 배출한 집안을 명문으로 보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권력자나 재벌 등을 명문가로 본다"며 "한국 사회는 이런 유형의 명문마저 뿌리내릴 토양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제시대와 광복, 분단 및 한국전쟁, 4.19와 5.16 등 짚은 정치 변동이 명문

가 형성에 장애가 됐다는 것이다.

◆ 엘리트 많이 낸 집안은=취재팀의 분석 결과 가까운 친인척 중 가장 많은 엘리트층을 가진 집안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집안으로 나왔다. 이 전 총재 집안에서 엘리트에 포함된 사람은 27명. 가족 중엔 이회경(KAIST 교수)씨 등 두 명뿐이다. 하지만 11개의 혼맥이 이어지면서 엘리트 숫자가 늘어났다.

이 전 총재 장남과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의 딸이 결혼한 게 계기였다. 이 전 장관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동서여서 효성가와 인척이 됐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딸이 효성가문에 시집가면서 이 시장과도 인척 관계가 됐다. 이 전 총재와 이 시장은 혈연 10단계를 거쳐야 이어지는 사이이다.

다음으로 엘리트가 많은 집안은 삼성·LG·현대 가문. 소속 엘리트는 나란히 26명이었다. LG-삼성(고구인회 회장 아들과 고 이병철 회장 딸), LG-현대(고 정주영 회장 손자와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 손녀) 사이에는 혼인 관계도 형성돼 있다. 혼맥은 직계 혈족에 비해선 '느슨한 연대'일 수밖에 없다. 국내의 경우 엘리트의 아들·딸·형제 등이 엘리트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혼인을 통해 느슨하게 맺어지는 명문가가 많은 게 특징이다.

본지 조사에서는 법조인 사이의 혼맥이 두드러졌다. 일례로 문상익 전 수원지검장은 아들이 서울고법

판사, 매제가 송중의 전 법제처장, 동서가 변호사(정인봉 전 의원)였다. 그는 모두 5명의 다른 법조인과 혈연을 맺고 있었다. 서영제 대구고 검장은 장인이 변호사였으며, 본인도 검사인 이득렬 전 MBC 사장의 아들을 사위로 맞았다.

◆ 명문가 엘리트의 출신 대학, 고교=서울대(40.4%)—연세대(7.9%)—고려대(5.7%)—이화여대(4.5%)—한양대(1.6%) 순이었다. 서울대 출신 비율은 전체 엘리트 평균(32.7%)보다 높았다. 연세대, 이화여대 순위가 전체 엘리트 출신 대학 순위(연세대 3위, 이화여대 15위)보다 높은 것도 특징이다. 경기도 출신의 비율(18.5%)은 전체 엘리트 평균(6.9%)보다 훨씬 높았다. 외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355명(21%). ▶일본 와세다대(18명)와 주오대(14명) ▶미국 하버드대(12명) ▶대만 중문대(10명) ▶미국 조지타운대(9명) 순이었다.

1. 명문가 엘리트들 직업은 안정성·자율성 선호...교수·법조인 많아

명문가 엘리트들 중엔 안정적인 고 자율성이 높은 교수, 법조인, 의료인 등의 전문직 종사자와 정치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직종 가운데도 교수가 2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법조인(22.6%)—기업인(13.9%)—의료인(11.0%). 정치인 비율(6.4%)은 명문

가 엘리트를 제외한 다른 엘리트 중의 정치인 비율(3.0%)보다 두 배나 높았다.

기업인 비율은 예상보다 낮은 편이었다. 명문가 엘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엘리트들만을 놓고 볼 때 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였다. 명문가 엘리트의 기업인 비율은 이에 비해 두 배 이상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 명문가 중엔 재벌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습 기업인이 많을 것이라 일반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연세대 한준 교수(사회학)는 “한국 사회가 부모의 직업을 세습하는 ‘초기화 사회’ 단계를 지나 다원화 사회로 이행한 때문”이라며 “명문가 엘리트가 전문직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내부의 경영 승계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라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기업이 많아지고, 벤처 기업이 급증한 것도 명문가 엘리트의 전문직 선호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명문가 엘리트 중 동문 엘리트와 가장 많이 연결된 인물은 홍원선 울산대 의대 교수였다. 홍 교수는 2188명의 학연자본(연결된 엘리트 동문 숫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2위는 박용현(2092명) 서울대 의대교수, 3위는 윤택구(1816명) 전 원자력병원장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경기도—서울대 의대 동문이다. 홍 교수는 홍사악 전 서울대 의대 교수, 윤 교수는 윤일선 전 서울

대총장, 박 교수는 박두병 전 두산그룹회장의 아들이다.

2. 엘리트 어디에 많이 사나 (상위 50개 지역)

서울 강남권·분당 빼면 대구 수성구 1위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은 주로 어디에 살까.

본지 분석 결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구시 수성구와 대전시 유성구에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는 경북고 등이 위치해 학군이 좋고 주거, 문화의 중심지여서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 조해녕 대구시장, 주호영 국회의원 등 엘리트 615명이 산다. 인구 1만 명당 14명 꼴이다.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대덕연구단지가 들어서 있는 유성구에 357명의 엘리트가 모여 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로플린 총장을 비롯해 교수와 연구원 등이 많아 ‘박사 동네’로 통한다. 전체 주민 수는 20여만 명으로 인구 1만 명당 엘리트 비율(17명)이 지방에선 최고다. 서울의 서대문, 영등포, 동작구 등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보다 높은 비율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엘리트들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수도권과 6개 광역시에 사는 사람은 94.8%였다. 중소도시 거주자는 5%에 불과했다. 엘리트들의 활동 무대인 관공서, 기업, 대학 등이 대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엘리트 3명 중 2명은 서울에 산다.

이 중 62%는 강남지역(강남, 서초, 송파구)에 산다. 기업인, 법조인, 의료인, 금융인 등 고소득자가 많다.

법조인의 경우 서울 거주자 1293명 중 65%가 강남 지역에 산다. 반면 종교인은 40명 중 8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본지가 전국 엘리트 3만1800명 중 중앙일보 조인스 인물 정보에 주소지를 기재한 1만9927명을 분석한 결과다

3. 주에선 기업인...전주선 법조인 서울 등 7대도시 제외하면 .

엘리트의 고향 · 집안 구분부 · 허창수 · 강영중 CEO들 잇따라 나와 '경영자의 고향' 전주

서울 등 7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62개 시·군 가운데 230명의 엘리트를 배출해 1위에 오른 전주시. 교육과 상업이 발달한 경남 서부 지역의 중심지로 경제인을 많이 배출했다. 230명 중 61명(27%)이 경제인으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전주는 오래전부터 한국 경제를 일으킨 최고경영자(CEO)의 산실이였다. LG, GS 그룹의 전신인 럭키금성그룹 '구씨, 허씨 가문'이 대표적인 전주 산(産). 럭키금성그룹은 1931년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명예회장이 전주 중앙시장에 작은 포목상을 연 게 모태가 됐다. 해방 직후 부산에서 조선흥업을 세우며 사업을 확장한 구 회장을 사돈 간인 전주의 만석꾼 허만정씨가 찾아가

출자를 하면서 LG, GS의 '구, 허' 동업이 시작됐다. 창업 2세대인 구자경 회장과 고 허준구 회장, 3세대인 LG와 GS의 구분부, 허창수 양대 총수도 모두 전주 태생.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과 박원배 전 한화석유화학 부회장, 김수필 SKC 부회장 등도 전주가 고향이다. 인근 경남 의령에서 자란 고 이병철 삼성 명예회장은 6개월 동안 전주 지수초등학교를 다녔다. 진주고를 졸업한 제진훈(경남 산청 출생)제일모직 사장과 손길승(경남 하동 출생) 전 SK 회장 등 '범 전주 재계 인물'까지 더하면 CEO의 산실로서 전주의 명성은 더욱 커진다. 풍수지리학자 최창조씨는 "전주를 지나는 남강은 재와 부를 상징하는데 이 지역에서 성공한 창업자가 나오자 그들을 좇아 기업인이 된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는 인구(34만8000여 명)의 3분의 1 이상이 학생일 정도로 젊은 도시다. 경상대, 전주교대, 연암공대 등 대학이 6개나 있다. 특히 81년 평준화 이후에도 경남과학고가 인재를 끌어 모아 포스트386세대에서도 전국 시·군 중 엘리트 배출 1위에 올려 놓았다.

배출한 인재 중 40%가 법조인 '고시의 고장' 전주

전주는 호남에선 유일하게 엘리트 배출 5위 안에 들었다. 조선시대 왕실의 고향이었던 전주는 과거 급제자를 많이 낸 곳 중 하나였다.

'고시(考試)'에 강한 지역 특색은 계속 이어졌다.

전주 출신 엘리트 218명 중 88명(40%)은 법조인이다. 시·군 단위 지역 중 최다 '법조인 동네'로 통한다.

이성룡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동정 전 대한변협 부회장, 박윤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중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신건 전 국정원장 등이 있다. 전주 태생 김성길 변호사는 "농촌 출신이 차별받지 않고 빠르게 출세하는 길이 '고시'라는 생각에 범조계로 많이 몰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른 분야의 인사로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유희열(전 과학기술부 차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이한선 중앙경찰학교장,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이 있다.

그러나 출생지가 아닌 고교를 기준으로 보면 엘리트 수는 441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명문 전주고가 엘리트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다. 이강국, 박재운 대법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원기 국회 의장,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대표적 전주교 동문이다.

70년대생 엘리트 43%가 여성 '여다(女多)의 섬' 제주

돌,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三多島)'로 불리는 제주에선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엘리트 297명

중 8%가 여성으로 서울(9%)에 이어 전국 둘째다.

주요 인사로는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광옥(식품영양학) 이화여대 교수, 김희경 울산지검 특수부 검사 등이 있다.

제주 출신 여성 엘리트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386세대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포스트 386세대에는 여성 비율이 43%로 인천(35%), 서울(27%)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포스트 386세대 여성 12명이 모두 사법 시험을 통과한 데 힘입었다.

제주 여성들이 잘나가는 비결은 강한 생활력에 있었다. 해녀일을 하며 어머니들이 가장 노릇을 했던 환경이 이제는 딸들을 엘리트로 키워낸 것이다. 대어급 마약 사범들을 잡아 유명해진 김희경 검사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 분야 일을 하겠다는 여고 친구가 많았다”며 “그런 자립심이 검사생활에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3만1800명의 엘리트 중 제주 출신은 1.3%였다. 386세대 이후 인천과 대전을 따돌렸다. 제주도 인구(55만여 명)를 감안하면 인천의 4배, 대전의 2.3배를 배출한 셈이다.

4. 다른 지역에선 ‘양반촌’ 안동 엘리트 전통 이어

경북 안동은 진주에 이어 시·군 지

역 기준으로 둘째로 많은 226명의 엘리트를 배출했다. 안동은 진주·경주와 함께 조선시대 영남지역 ‘3대 양반촌’으로 불리며 많은 인재를 양성했던 곳. 지리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전국 인재의 반은 영남이요, 영남 인재의 반은 안동”이라고 했을 정도다. 안동 출신 엘리트의 32%는 법조계로, 11.5%는 교육계로 진출했다. 유학의 본산답게 교육·문화의 중심지가 된 데다 보수적인 지역색이 반영된 결과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이인용 삼성전자 전무, 유안진 서울대 교수(가족 아동학),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안동 출신이다.

전통 지역의 강세 속에서 신흥 명문지역도 등장했다. 순천(99명 배출)과 포항(120명)은 1970년대 출생 세대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순천고, 포항고 등 지역 명문고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순천은 시·군 단위 지역에서 정치인(12명)이 가장 많았다. 김태년, 서갑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경재 전 국회의원, 허경만 전 전남도지사 등이 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설가 조정래씨도 순천이 고향이다.

포항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엘리트 교육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포스코가 세운 포항제철고는 386세대에서 명문고 순위 200위였으나 포스트 386세대에서는 50위권에 진입했다. 이 지역 출신 인사로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이기화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있다.

이 밖에 전체 세대에 걸쳐 8, 9위에 오른 충남 논산(142명)과 충북 청주(137명)도 주목할 만하다. 논산은 호서지방의 유교 중심지답게 법조계 진출 엘리트가 38%나 됐다. 또 이규성 전 재경부 차관, 조중형 웅진코웨이 대표, 오갑수 SC제일은행 이사회 부의장 등 쟁쟁한 경제·금융인을 배출했다. 교육도시로 이름난 청주는 50, 60년대 출생 세대에서 고전했지만 포스트 386세대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의료인 엘리트 비율(5.8%)은 시·군 지역 평균(4%)을 앞질렀다.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 박인서 삼성제일병원 원장, 인주철 대구보훈병원 원장 등의 고향이다.

5. 광역지자체 비교해 보니 386세대부터 호남 비율 늘어

지난 40년 동안 파워엘리트들의 출신 지역도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에서 광주 광역시의 엘리트 배출 수는 239명, 당시 전국의 1.8%에 불과했다. 하지만 386세대에서는 2.4%, 포스트 386세대에서는 3.7%로 경증 뛰었다. 광주를 제외한 전남의 세대별 엘리트 비율도 같은 기간 7.9%에서 10.3%로 올라갔다.

광주와 전남북을 포함한 호남 전체의 엘리트 비중은 386세대에서는 19.1%로 50년대 출생 세대보다



박찬정(49)

1261명의 엘리트와
학연으로 연결

현 울산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 경력: • 경기여고 졸업
• 서울대 의대
학·석·박사
• 한림대 의대 부교수
• 울산대 의대 부교수

■ 이래서 의료계 택했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는 의학이나 법학이라는 아버지의 권유로 택했다”

■ 이런 점은 아쉬워

“전공 선택 때 일부 전공과에서 성차별이 있었던 점은 아쉽다”



최혜리(40)

989명의 엘리트와
학연으로 연결

현 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

- 경력: • 중문여고 졸업
• 서울대 법대 학사
• 서울대 법대 대학원 수료
• 서울지법·
서울가정법원 판사

■ 이래서 법조계 택했다

“친구 인니가 서울대 공대 수석 입학·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법대 진학을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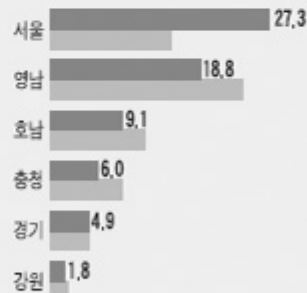
■ 이런 점은 아쉬워

“인맥으로 연결되는 변호사 수업에서 여자라 소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성 엘리트 어느 직군에 많나



여성 엘리트의 출생지는



여성 엘리트 출신대학은



엘리트 기준

일정 기준(총합병원 과장, 주요 대학 부교수 등) 여성의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 명문대 출신이나 석·박사 소지자 같은 특별 기준이 아님

다. 부산은 50년대 출생 엘리트의 7.9%를 배출했지만 포스트 386세대에서는 4.8%로 떨어졌다. 대구도 같은 기간 2%포인트 떨어져 4.8%를 기록했다. 엘리트를 가장 많이 내는 서울도 50년대 출생세대(24.7%)와 포스트 386세대(24.1%)가 비슷했다.

충청 지역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락세를 보였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보인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세대별 흐름으로 볼 때 호남 출신 엘리트들의 약진이 가장 뚜렷했던 것이다. 서울대 장덕진(사회학) 교수는 “386대에서 호남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민주화와 함께 어느 정도 지역 격차

가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준다”며 “특히 호남정권의 탄생으로 386세대 호남 엘리트들의 정계 진출도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표적인 엘리트 층원지인 서울과 영남 지역은 정체된 모습이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된 대전에서만 출신 엘리트의 비율이 올랐다. 그러나 대전도 전 세대에 걸쳐 상승률이 1%포인트를 넘지 못했다. 지역주의가 열은 경기와 강원 지역의 엘리트 비중도 점차 줄어들었다. 분

단의 역사가 반세기를 넘는 사이 386세대부터는 이북 출신 엘리트가 사라진 것도 눈길을 끈다. 이북 출신은 50년 이전 출생 세대(6.4%)에서 대구와 부산 출신들보다 세력이 더 컸었다.

6. 7대 도시 뺀 엘리트 산실

진주·안동·전주·경주·마산순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은 경남 김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남 신안,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 태생이다. 전.현직 대통령 9명 중 노태우 전 대통령(대구)을 제외한 8명이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 출신이다. 또 9월 현재 중앙부처 장관 19명 중 13명이 지방 시.군 출신이다. 이런 지방 시.군의 강세는 극소수 정치엘리트 사회에 한정된 현상일까.

본사 취재팀이 중앙일보 조인스 인물정보에서 정치.경제.법조.교육.의료 등 각계 엘리트 3만1800명의 출생지를 뽑아 세대별로 정리한 결과 '지방의 힘'이 확인됐다.

서울.부산 등 7대 도시(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태어난 엘리트는 전체 분석 대상의 57.5%였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방 시.군의 주민 수가 급격히 감소해 왔음에도 지방은 엘리트 배출 창구로서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 이전 출생한 엘리트(6.3세대) 중 지방 시.군 출신 비율은 58.4%였으나 50

년대생(긴급조치세대)에서 55%로 다소 떨어졌다가 60년대생(386세대)에서 59%로 다시 늘었다. 포스트 386세대인 70년대생에서도 지방 시.군 출신은 57.3%를 차지했다.

엘리트들이 출생한 시기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지방 시.군 거주 비율은 49년(6.3세대) 86.3%에서 75년(포스트 386세대) 63.1%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국 162개 지방 시.군 중 경남 진주, 경북 안동, 전북 전주, 경북 경주, 경남 마산,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충남 논산, 충북 청주, 경북 의성 등 10개 지역이 전체 세대로 볼 때 최대 엘리트 출신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5개 지역인 진주.안동.전주.경주.마산의 배출 수는 광역단체인 울산(167명)보다 많았다.

전체 세대에 걸쳐 230명을 배출해 종합 1위에 오른 경남 진주는 50년 이전 출생 세대에서 1위였다가 50년대생에서 6위, 386세대에서 3위로 다소 처졌으나 포스트 386세대에서 다시 선두가 됐다. 386세대에서 안동, 50년대생에서는 경주가 각각 1위였다. 이전 세대까지 10위 안에 들지도 못하던 전남 순천, 경남 창녕, 경북 포항 등이 포스트 386세대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영.호남의 엘리트 배출 격차는 뚜렷이 좁혀졌다. 부산.대구.경북.경남.울산을 포함한 범 영남을 100명으로 봤을 때 범 호남(광주.전남.전

북) 출신 엘리트의 규모는 50년대생 44명, 60년대생 53명, 70년대생 59명으로 크게 늘었다. 49년부터 75년까지 호남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72%)의 3분의 1 수준인 26%에 불과해 실제적인 영.호남 격차는 더 줄어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영.호남 등 응집력이 강한 지역의 전통 지방 시.군의 경우 수도권 집중 추세에도 엘리트의 배출 규모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충남대 최진학(자치행정학) 교수는 "인구가 대도시로 대거 이동했음에도 엘리트 출신지로서 지방의 응집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80년대생에서도 '지방의 힘'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파워 엘리트의 62%는 서울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거주자 중 53.9%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지역에 살고 있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용산.종로.서대문구,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구 수성구▶대전 유성구▶광주 북구▶대전 서구 등에 각각 유난히 많은 엘리트가 거주하고 있었다.

파워 엘리트 중 한 사람 이상의 다른 엘리트와 혈연(사돈을 포함한 친.인척)을 가진 사람은 1380명(4.3%)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으로 환산하면 10만 명당 3명이다. 혈연 구성원이 10명을 넘는 명문가는 이회창(27명).삼성(26명).LG(26명).현대(26명).두산(10명) 집안 등으로 분석됐다. ●